

코셈 (360350)

성장의 열쇠는 신제품 개발

회사개요

코셈은 2007년도에 설립되었으며, 나노 단위의 미세물 분석을 위한 전자현미경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동사는 산업내 후발주자로 시장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치고 있다. ①글로벌 최초 제품 개발을 통해서 시장진입을 시도 및 확대하고 있다. ②글로벌 제품과 비교우위 배율이 가능한 반면, 경쟁사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③유통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성장의 열쇠는 신제품

후발주자로서 침투율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R&D를 통해 신제품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현 주력제품인 SEM(주사전자현미경)의 라인업을 확대 및 강화할 계획이다. ①대기 미개방 상태에서 가공 및 분석이 가능한 현미경인 FIB-SEM을 대체하는 IP-SEM을 개발 중이다. 편의성을 개선시켰으며 가격경쟁력도 보유하고 있다. ②광학현미경처럼 대기중에서 검사할 수 있는 A+SEM을 개발 중이다. 광학현미경 시장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 제품이다. ③AI-SEM도 준비하고 있다. 조작의 편의성을 확대시켜 전문가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제품이다.

주목해야 하는 이유

첫째, 동사의 신제품은 현존하는 제품의 불편함을 개선시킨 제품, 즉 소비자의 편의성을 개선시킨 제품이라는 점에서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IP-SEM, A+SEM, AI-SEM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기술개발과 마케팅 강화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가격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다. 셋째, 나노경쟁이 확대되고 있어 전자현미경 혹은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검사장비 기업과의 협업 가능성이 존재한다.



권명준 스몰캡
myoungchun.kwon@yuantakorea.com

NOT RATED (I)

목표주가 **-원 (I)**

현재주가 (7/8) **11,160원**

상승여력 **-**

시가총액	632억원
총발행주식수	5,661,970주
60일 평균 거래대금	42억원
60일 평균 거래량	269,770주
52주 고/저	35,750원 / 10,450원
외인지분율	3.70%
배당수익률	0.00%
주요주주	이준희 외 5인

주가수익률 (%)	1개월	3개월	12개월
절대	(9.4)	(30.9)	0.0
상대	(8.7)	(30.8)	0.0
절대 (달러환산)	(10.6)	(32.4)	0.0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0A	2021A	2022A	2023A
매출액	87	95	125	137
영업이익	3	2	18	15
지배순이익	3	5	17	17
PER	0.0	0.0	0.0	0.0
PBR	0.0	0.0	0.0	0.0
EV/EBITDA	-6.5	-8.9	-2.6	-2.8
ROE	4.7	6.0	17.5	14.3

자료: 유안타증권

성장의 열쇠는 신제품 개발

회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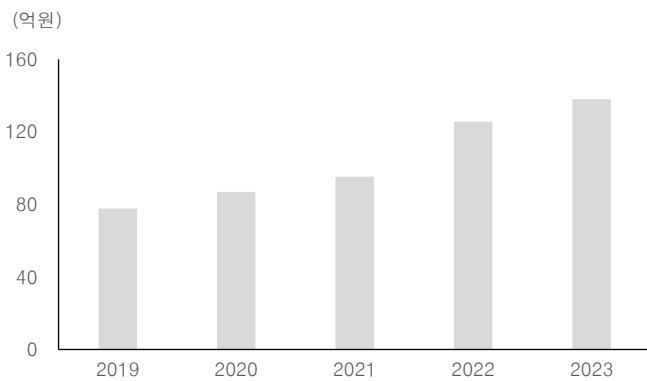
코셈은 2007년도에 설립되었으며, 2024년 2월 상장되었다. 나노 단위의 미세물 분석을 위한 SEM(주사전자현미경)이 주력제품이다. 동사는 2008년 SEM 국산화에 성공했다. 한국은 독일/일본/미국/체코에 이어 5번째 SEM 보유 국가로 되었다.

실적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매출액 77.2억원에서 2023년 137.3억원으로 연평균 15% 이상 매출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4년 1분기 실적은 매출액 26.7억원, 영업적자 4억원으로 부진했지만, 전망산업의 업황 부진에 따른 수주 지연으로 판단된다.

주요 제품은 Tabletop SEM, Normal SEM, IP(이온밀러) 등이며 특히 Tabletop SEM이 전체 매출의 7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수의 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에서 경박 단소화, 화학적처리 증가 등으로 미세 구조물 또는 재료의 표면 형상에 대한 정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소재에 대한 연구가 이어짐에 따라 개별화된 연구실, 전문가가 없는 산업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현미경의 소형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동사는 Tabletop SEM을 개발, 관련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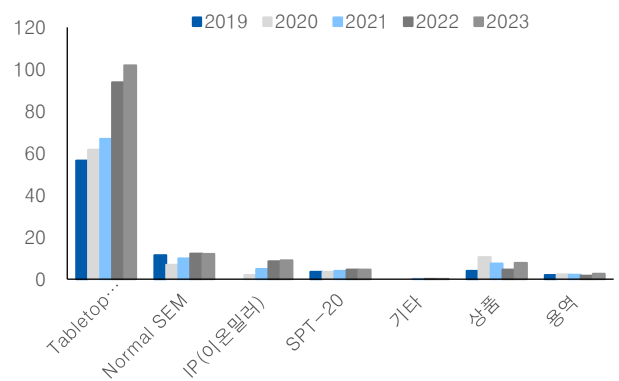
수출 비중이 높으며 2023년 기준으로 매출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되었다. 대부분 계약된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가 되며, 대리점이 없는 경우 현지 딜러를 통해 판매된다. 국내에서는 기 계약된 20여개의 딜러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그림 1] 연도별 매출 추이



자료: 코셈,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제품별 매출 추이



자료: 코셈,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전자현미경 VS. 광학현미경

유리로 된 렌즈와 자연광을 사용하여 물체를 확대하여 관찰하는 광학현미경과 달리 전자현미경은 전자석과 전자를 이용하여 물체를 관찰한다. 전자를 이용할 경우 광학현미경 대비 더 높은 배율로, 선명한 영상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보유하고 있다.

광학현미경

광학현미경은 볼록렌즈를 활용하여 가시광선을 확대하여 물체를 확인한다. 접안렌즈와 대물렌즈의 배율에 의해 볼 수 있는 배율이 달라진다. 빛으로 물체를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빛의 파장의 길이 이하의 대상을 관찰할 수 없다. 100배 배율이 기술적으로 한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H/W와 S/W의 기술을 통해 5,000배 이상 배율 구현이 가능한 현미경도 존재한다. 전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관련기업으로는 자이스(ZEISS), 올림푸스, 니콘, 라이카(LEICA) 등이 있다. 종류로는 생물현미경, 실체현미경, 위상차현미경, 편광현미경 등이 있다.

생물현미경은 의학 및 생물학 분야에 주로 사용되는 현미경으로 물체를 통과한 빛이 두 개의 렌즈를 통해 굴절되어 물체의 모습이 확대되는 구조이다. 실체현미경은 물체 표면에서 반사된 빛이 렌즈를 지나면서 굴절된 물체를 볼 수 있으며 조립, 해부 등에 사용된다.

위상차현미경은 색이 없는 투명한 물체라도 그 내부의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특수한 현미경이다. 관찰하고자 하는 물체를 따로 염색할 필요가 없어 살아있는 세포에 들어가는 작은 기관을 관찰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편광현미경은 광물의 성질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현미경이다. 얇게 만든 광물이나 암석 조직에 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을 통과시켜 관찰한다.

[그림 3] 광학현미경



자료: 자이스(ZEIS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전자현미경



자료: 코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전자현미경

광학 현미경의 가시광선 파장대로는 확대 범위가 제한적이다. 전자현미경은 빛 대신 전자를 통해 물체를 관찰한다. 단, 관찰을 위해 세포를 고정시켜야 한다. 즉, 살아있는 세포의 관찰이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배율은 2,000배~30만배까지 관찰이 가능하다. 관련기업으로 JEOL, 히타치, ZEISS, Thermo Fisher 등이 있다. 전자현미경은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투과전자현미경(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으로 구분된다.

주사전자현미경은 물체의 표면에 전자를 조사, 표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전자를 통해 얻은 이미지 데이터를 컴퓨터로 재구성해 물체의 표면을 3D로 구현한다. 다만, 물체의 색을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투과전자현미경은 전자를 투과시켜 관찰하고자 하는 물체를 1/1000mm 이하로 얇게 자르거나, 전자가 투과할 수 있는 필름에 얇게 도포하여, 물체의 얇은 단면을 볼 수 있다.

전자현미경은 1932년 TEM의 개발에서 시작되었다. TEM은 분해능력이 뛰어나고 시료의 격자구조 및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전자선이 시료를 투과하기 위해서는 시료가 박막이어야 한다. 시료의 표면구조를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여 시료의 표면정보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고 초점심도가 우수한 SEM이 개발되었다. 1965년 세계 최초의 상업용 SEM이 등장하였다. 관련기업으로는 ZEISS, HITACHI, JEOL, Thermo Fisher 등이 있다.

원자현미경

원자 현미경은 원자를 관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름이 붙여졌다. 현재는 원자뿐 아니라 중성자, 양성자, 쿼츠(양성자의 구성입자)를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원자현미경의 원리는 원자 표면을 보폭한 탐침으로 긁어서 원자를 지날 때 탐침이 움직이면 레이저가 그것을 포착하여 원자의 모습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관련기업으로 Bruker, Oxford, 파크시스템즈 등이 있다.

원자현미경에서는 주사탐침현미경(SPM: Scanning Probe Microscope)과 원자힘현미경(AFM: Atomic Force Microscope)이 있다 SPM은 물체와 탐침 양쪽에 전기를 걸어 양자역학적 터널링 현상으로 전류가 흐르는 특성을 이용한다.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탐침을 물체 위에서 움직이면 탐침의 움직임을 컴퓨터로 분석해 물체 표면의 원자 구조 이미지를 그려내는 방식이다.

AFM은 물체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일 때 사용되며, 시료와 탐침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이용하여 물체의 형상을 측정한다. AFM은 SPM보다 표면을 그려내는 최대 해상도는 부족하지만 물체를 거의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상용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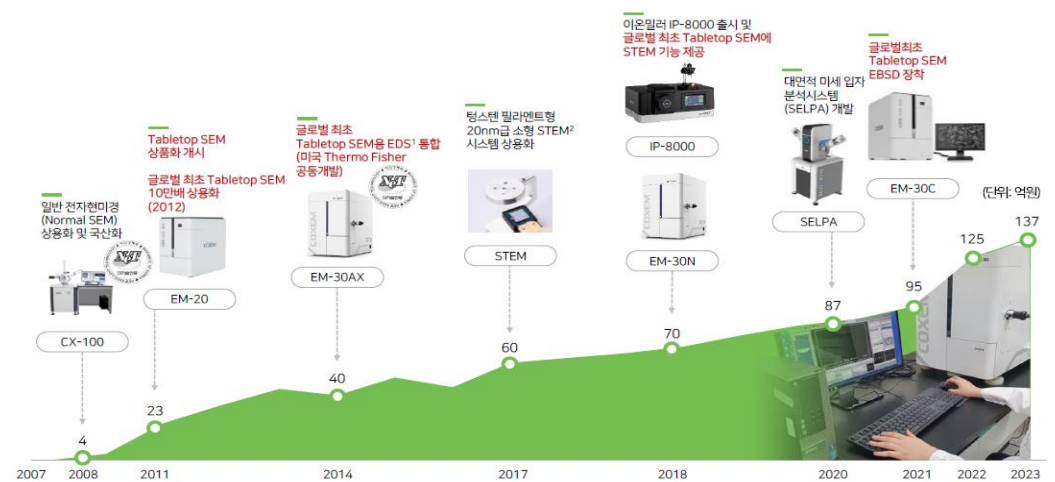
경쟁력

전자현미경 글로벌 업체로는 ZEISS, HITACHI, Thermo Fisher 등의 대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당사는 전자현미경 Market내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력. 글로벌 최초 제품 개발을 통해서 시장진입을 시도 및 확대하고 있다. 2008년 일반 전자현미경 상용화 및 국산화에 성공 이후 글로벌 최초 제품을 독자적 혹은 협동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다. 2014년에는 미국 Thermo Fisher와 글로벌 최초 Tabletop SEM용 EDS(Energy Dispersive X-ray Microscope)통합에 성공했다. 2018년에는 글로벌 최초 Tabletop SEM에 STEM(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주사형 투과전자현미경) 기능을 제공했으며, 2021년에는 Tabletop SEM에 EBSD(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를 장착했다.

가성비. 글로벌 제품과 비교시 고배율 검사가 가능한 반면, 경쟁사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Tabletop SEM의 경우 시장 진출을 위해 2011년 경쟁제품 대비 60%대의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현재는 레퍼런스 확보와 인지도 개선으로 경쟁사 대비 80%가격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다. 초기에는 가성비를 장점으로 시장에 진출, 레퍼런스 확보 이후 가격을 상향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R&D를 통한 신제품 개발 지속



자료: 코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성장 동력 1. R&D 를 통한 신제품 개발

후발주자라는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R&D를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주력인 SEM(주사전자현미경)의 라인업을 확대 및 강화할 계획이다.

IP-SEM(CP-SEM). 현재 대기 미개방 상태에서 가공 및 분석이 가능한 현미경은 FIB-SEM이 유일하며, 가격은 10억원대 이상이다. 동사는 IP-SEM 개발을 통해 FIB-SEM을 대체할 계획이다. 동사의 IP-SEM은 FIB-SEM과 동일한 조건에서 분석이 가능하며, 기존 SEM에 시료전처리장비(IP)를 결합하여 편의성을 개선시켰다. 시료 제작부터 분석까지 진공에서 손상 없이 원상태의 동작을 규명 분석이 가능하다.

2024년 제품개발을 완료한 후 2025년부터 양산 및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확장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다양한 산업내 진출할 수 있다. IP-SEM 장비가 개발될 경우 국내외 2차전지 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차전지 산업에서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 등 산소 및 수분에 반응성이 높은 소재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고체배터리의 경우 제조 조건이 더욱 Harsh해져 제조공간이 Dry Room에서 Super Dry Room으로 변화된다는 점과 In-Line하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고분자 복합소재 등에서 활용될 수 있어 영역 확대가 좋은 제품이라고 판단된다.

②타겟제품인 FIB-SEM 대비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FIB-SEM 대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과거 Tabletop SEM 제품의 경우 초기 시장진출을 위해 기존제품 대비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진출, 성장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③국산화 제품이다. 국내 Tech 등의 기업들의 제품제조, 특히 소재와 관련해서 자사의 레시피 등의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 글로벌 제품 대비 국산화 제품이 유사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국산 제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A+SEM(Air-SEM). 기존 SEM 장비는 시료에 전자를 주사한 후 시료 표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통해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진공 상태에서만 시료를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동사의 A+SEM 장비는 대기 중에서 시료 관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제품 개발시 제품을 통해 광학현미경 시장으로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학현미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반면, 더욱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내 광학현미경 제조사인 리암솔루션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상용화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

AI-SEM. 학습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차세대 전자현미경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아르곤 국립 연구소 연구팀이 AI를 활용해 현미경 감도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한바 있지만, 전자현미경내 AI를 통한 오류 가능성과 원인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적용이 쉽지 않았다. 당사는 디노티시아와 2023년부터 AI 기술을 전자현미경에 적용하여 촬영 시간 단축, 영상품질 개선을 목표로 공동연구를 개발했으며, 2024년 2월 세계 최초로 AI 기술을 접목한 전자현미경 개발과 상업화를 위해 디노티시아와 MOU를 체결했다. 연내 AI-SEM 상용화 제품을 출시할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조작 간편성 및 편의성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R&D를 통한 신제품이 현재 상황의 변화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①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국내 대표산업들에게 국산화 저변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②전방산업 내에서 광학현미경의 수요를 야기할 수 있는 소재 및 공정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정 및 소재 변화는 SEM를 비롯한 검사장비내의 변화도 동반된다.

성장 동력 2. 유통망 구축 및 확대

후발주자라는 점에서 기술개발과 더불어 제품 홍보도 필수요소이다. 2024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유통망 구축 및 확대, 마케팅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홍보를 위해 꾸준히 전시회 참가를 이어가고 있다. 상반기에는 Analytica 2024(독일, 4월), 대한금속재료학회(5월) 등에 참석했으며, 하반기에는 M&M 2024(미국, 7월), EMC 2024(덴마크, 8월), 나노코리아(한국, 7월), K-Display(한국, 8월), 대한금속재료학회(한국, 10월)에 참석할 예정이다.

유통망 구축을 위해 상반기에는 아시아 지역 신규 대리점 계약(인도, 싱가포르)을 진행했으며, 13개국 대리점이 참석한 글로벌 대리점 대회(스페인, 5월)를 통해 신제품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하반기에도 중동/인도/동유럽/남미 등으로 딜러를 확대할 계획이다. 7월에 미국과 남미 대리점을 방문할 예정이며, 중국 시장 확대를 위해서도 Special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표 1] 연구과제 수행현황

연구기간	연구과제명	상용화 제품명
07.06~08.05	Normal SEM 기술 상용화	CX-100
09.06~10.10	Normal SEM 업그레이드 기술 개발	CX-200TA/TM
09.05~12.07	Tabletop SEM 상용화 기술 개발	EM-30
14.08~15.08	고분해능 Tabletop SEM 기술개발	EM-30P
18.08~19.05	고성능 Tabletop SEM	EM-30N
15.08~18.07	고성능 Normal SEM 기술	CX-200P
18.03~18.10	CeB6 Tabletop SEM 기술	EM-30C
18.11~20.09	대면적 미세입자 분석기술	SELPA
17.08~19.07	이온밀러 상용화 기술개발	IP-8K
19.11~20.12	고성능 이온밀러 기술개발	IP-8K+
20.01~22.12	차세대 Tabletop SEM 기술개발	EM-40
15.08~	이온밀러 결합 전자현미경 기술	IP-SEM
15.07~	대기압 전자현미경 기술개발	Air-SEM
19.06~	인공지능 전자현미경 기술	AI-SEM

자료: 코셈,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신제품 개발 로드맵



자료: 코셈,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기술개발 중인 CP-SEM



자료: 교셈,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기술개발 중인 Air-SEM



자료: 교셈,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올해 2월에 상장된 회사이며 시가총액도 낮아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다. 1분기 영업적자, 2024년 연간 실적으로도 전년대비 큰 폭의 성장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대되는 신제품의 성공가능성.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품의 불편함을 개선시킨 제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IP-SEM, A+SEM, AI-SEM 모두 이에 해당된다. 올해 하반기 IP-SEM 기술개발 완료하고, 시생산과 영업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6년 양산예정인 A+SEM, 산업용 SEM는 대량판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판단된다.

합리적 전략. 기술력이 높은 기업은 기술 개발에 집중한 나머지 영업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무관심이 낮은 기업들이 많다. 반면, 동사는 기술개발과 동시에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전시회 참여, 대리점 미팅 횟수가 상향되고 있으며, 딜러의 수도 증가되고 있다. 기술력이 높은 기업들은 후발주자 입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대비 자사의 제품 가격을 낮추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동사는 시장 진출을 위해 과감한 가격경쟁력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역시 성공가능성이 높이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협업 가능성. 전자현미경 혹은 관련 기술을 검사장비 기업과의 협업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삼성전자와 TSMC는 나노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의 전자현미경 기술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비교할 수 있는 Peer 기업들이 존재하며 해당 기업들이 매출성장과 주가 상승이 동반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원자현미경을 하고 있는 파크시스템스(140860)가 대표적이다. 현미경의 종류 및 경쟁구조 및 강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신제품 출시에 따른 매출성장이 이어진다면 주가 흐름은 유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코셈 (360350) 추정재무제표 (K-IFRS)

결산(12월)	2019A	2020A	2021A	2022A	2023A
매출액	77	87	95	125	137
매출원가	43	49	55	67	76
매출총이익	34	37	40	58	62
판매비	32	35	38	41	47
영업이익	2	3	2	18	15
EBITDA	5	5	4	21	19
영업외손익	0	0	3	0	2
외환관련손익	1	-1	1	-1	0
이자손익	-4	0	0	1	2
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기타	3	1	1	0	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	3	4	18	17
법인세비용	-5	-1	-1	1	0
계속사업순이익	7	3	5	17	17
중단사업순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7	3	5	17	17
지배지분순이익	7	3	5	17	17
포괄순이익	6	3	6	18	16
지배지분포괄이익	6	3	6	18	16

주: 영업이익의 산출 기준은 기존 k-GAAP과 동일. 즉,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만 차감

결산(12월)	2019A	2020A	2021A	2022A	2023A
영업활동 현금흐름	15	-3	6	19	-1
당기순이익	7	3	5	17	17
감가상각비	2	2	3	3	3
외환손익	0	0	0	1	0
중속, 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자산부채의 증감	-1	-14	-7	-9	-26
기타현금흐름	7	5	6	6	3
투자활동 현금흐름	0	-24	-6	-2	-15
투자자산	0	0	0	0	0
유형자산 증가 (CAPEX)	-1	-2	-1	0	-2
유형자산 감소	0	0	1	0	0
기타현금흐름	1	-21	-5	-1	-14
재무활동 현금흐름	-25	6	2	2	1
단기차입금	0	0	0	0	0
사채 및 장기차입금	0	0	0	5	0
자본	0	8	3	0	3
현금배당	0	0	0	0	0
기타현금흐름	-25	-2	-2	-2	-2
연결범위변동 등 기타	0	0	0	-1	0
현금의 증감	-10	-20	2	19	-16
기초 현금	44	34	14	16	35
기말 현금	34	14	16	35	19
NOPLAT	7	3	2	18	15
FCF	7	-10	-4	13	-8

자료: 유안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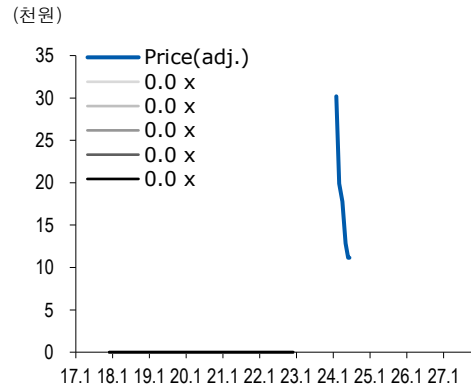
- 1. EPS, BPS 및 PER, PBR은 지배주주 기준임
- 2. PER 등 valuation 지표의 경우, 확정치는 연평균 증가 기준, 전망치는 현재주가 기준임
- 3. ROE, ROA의 경우, 자본, 자산 항목은 연초, 연말 평균을 기준으로 함

결산(12월)	2019A	2020A	2021A	2022A	2023A
유동자산	70	87	89	117	136
현금및현금성자산	34	14	16	35	19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4	22	18	11	25
재고자산	20	30	28	38	50
비유동자산	17	22	24	23	25
유형자산	3	5	6	5	6
관계기업 등 지분관련자산	0	0	0	0	0
기타투자자산	5	6	6	6	6
자산총계	88	109	113	141	161
유동부채	14	20	14	22	28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3	18	11	13	16
단기차입금	0	0	0	0	0
유동성장기부채	0	0	0	0	5
비유동부채	8	11	10	12	5
장기차입금	0	0	0	5	0
사채	0	0	0	0	0
부채총계	23	31	25	34	33
지배지분	65	78	89	107	128
자본금	22	24	25	25	25
자본잉여금	64	74	81	81	87
이익잉여금	-29	-25	-21	-3	13
비지배지분	0	0	0	0	0
자본총계	65	78	89	107	128
순차입금	-34	-33	-40	-55	-53
총차입금	0	1	1	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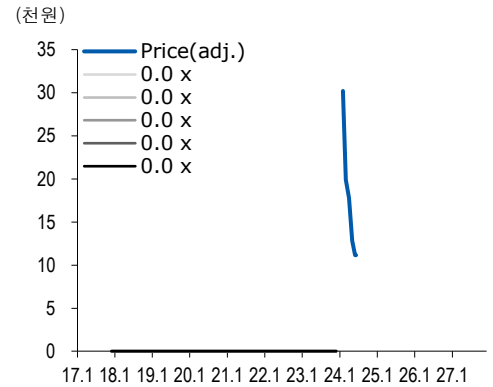
결산(12월)	2019A	2020A	2021A	2022A	2023A
EPS	268	74	101	348	337
BPS	1,463	1,627	1,798	2,174	2,530
EBITDAPS	99	113	92	434	373
SPS	1,689	1,912	1,933	2,541	2,747
DPS	0	0	0	0	0
PER	0.0	0.0	0.0	0.0	0.0
PBR	0.0	0.0	0.0	0.0	0.0
EV/EBITDA	-7.5	-6.5	-8.9	-2.6	-2.8
PSR	0.0	0.0	0.0	0.0	0.0

결산(12월)	2019A	2020A	2021A	2022A	2023A
매출액 증가율 (%)	0.0	12.1	9.7	32.0	9.6
영업이익 증가율 (%)	0.0	10.5	-39.2	1,058.8	-15.6
지배순이익 증가율 (%)	0.0	-51.7	47.1	246.2	-1.8
매출총이익률 (%)	43.9	43.0	42.0	46.6	45.0
영업이익률 (%)	3.0	2.9	1.6	14.2	10.9
지배순이익률 (%)	9.0	3.9	5.2	13.7	12.3
EBITDA 마진 (%)	5.9	5.9	4.7	17.1	13.6
ROIC	51.5	10.3	4.5	41.5	28.2
ROA	15.9	3.4	4.5	13.5	11.2
ROE	21.4	4.7	6.0	17.5	14.3
부채비율 (%)	34.8	40.2	27.8	31.4	26.3
순차입금/자기자본 (%)	-52.3	-42.9	-45.3	-51.7	-41.3
영업이익/금융비용 (배)	0.5	48.8	29.9	176.0	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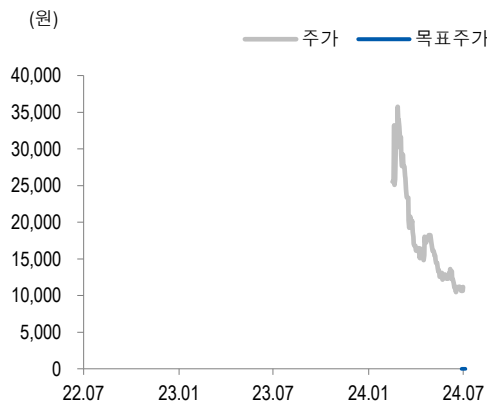
P/E band chart



P/B band chart



코셈 (36035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4-07-09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83.8
Hold(중립)	16.2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4-07-08

※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 권명준)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5%이상, Hold: -15% 미만 ~ +15% 미만, Sell: -15%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